

송순(宋純)이 경험한 특별한 의례, 회방연(回榜宴)

박종오*

차 례

1. 머리말
2. 회방연의 시작 - 송순의 회방연
3. 회방연의 변천 - 국가 기념식
4. 회방연의 가치 - 소수의 특별한 경험
5. 맺음말

| 국문초록 |

회방연(回榜宴)은 과거(科擧)에 합격한지 60년이 되는 해에 시행했던 조선시대의 기념식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신분 유지나 출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렇지만 과거 합격이 그리 쉬운 일도 아니었고, 회방 또한 장수한 관원만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조선시대 회방과 관련된 기록은 면양정 송순에 관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1579년 회방을 맞이한 송순을 위해 가족들이 면양정에서 회방연을 베풀어 준다. 이 회방연에는 당시 전라도의 전·현직 관료들이 대거 축하객으로 참석하는데, 제자와 지인들이 손수 가마를 메고 송순을 옹기진풍경이 펼쳐진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후대에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회방연은 정조(正祖) 연간에 점차 제도화 되었는데, 회방을 맞은 사람에게 특별히 한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 정식으로 행해졌다. 또한 회방을 맞이한 이들을 입궐하게 하여 어사화를 내려주고, 회방 흥패(또는 백패)를 발급해 주었으며, 회방연의 비용을 마련해 전달해 주었다. 이처럼 회방연은 조선 전기에는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행사로 기념되었다가 후기로 가면 국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가적인 행사로 제도화되었다.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결합하여 만든 간지(干支)는 60년이 되면 새로이 다시 시작된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지닌 회갑(回甲)이나 회혼(回婚) 등은 60년 만에 맞는 특별한 기념일이다. ‘회갑’이나 ‘회혼’은 일반 사람들도 장수(長壽)하면 경험할 수 있는 의례이다. 반면 ‘회방’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경험한 소수의 장수 관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송순이 경험한 회방연은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의례인 셈이다.

핵심어 : 회방연, 과거시험, 60주년, 기념식, 면양정 송순

1. 머리말

주지하듯 양반(兩班)이란 고려시대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지칭하던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양반은 선비 [士] 와 전·현직 관료 [大夫] 를 일컫는 사대부(士大夫)라는 말과 통용되기도 하는데, 전·현직 관료는 본디 선비였다. 학문을 닦던 평범한 선비가 나랏일을 맡아보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科擧)에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조선시대 양반이 볼 수 있었던 과거에는 문·무과가 있다. 여기에는 다시 대·소과가 있었는데, 문무의 대과(大科) 합격자를 급제(及第), 소과(小科) 합격자를 생원(生員)·진사(進士), 또는 출신(出身)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공신(功臣) 또는 고관(高官)을 역임한 자손에게 음직(蔭職)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모든 양반이 관직이나 품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농업 등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체로 16세기 이후에는 군역(軍役)의 부담을 지지 않는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양반은 조선왕조의 지배층으로 과거 등을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향촌사회를 호령하면서

군역을 담당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¹⁾을 지칭한다.

이렇듯 양반들에게 있어 과거는 신분 유지나 출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었다. 그렇지만 과거 합격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평생을 과거 준비로 허비하는 선비들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것은 가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크나큰 영광이었다. 또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지 60년이 되는 회방(回榜)을 맞이하는 것은 20대 전후에 소과나 대과에 합격하여 80세 이상 장수한 관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수(李晩秀, 1752~1820)는 『극원유고(屨園遺稿)』에 “2·30세가 지나서 재주가 이루어지고 학문이 진보하여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후에 과거에 합격하여 조정에 오를 수 있으니 회방에 이르는 것은 대개 천백사람 중에 한사람이 있었다.”²⁾라고 기록할 정도였다.

조선시대 회방과 관련하여 “기묘(己卯, 선조 12, 1579)에 가족들이 회방연을 베풀어 주었다.”³⁾는 면양정 송순(俛仰亭 宋純, 1493~1582)의 기록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때문에 송순의 회방연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조선시대 거행된 회방연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송순의 회방연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가족 축하 행사였던 회방연이 점차 국가에서 관장하는 기념행사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회방연이 가치에 대해, 특히 회방연이 송순에게서 시작된 양반, 그 중에서도 소수의 관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의례였음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즉 본 글의 중점은 회방연에 있

1) 정진영, 「조선시대 지방양반들의 일상생활」, 『고문화』 53권, 한국대학박물관협의회, 1999, 58쪽.

2) “過二十三十 材成學進 聞達於世 然後可以決科登朝 則至於回榜 蓋千百人而一有焉”(『屨園遺稿』 卷之九, ○玉局集 叙 攢稽錄叙)

3) “己卯 家人設回榜宴”(『俛仰集』 卷之四 諡狀, 右參贊企村宋公諡狀[趙鐘永]). 이하에서 인용하는 『면양집』 해석은 담양문화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송순 저, 박래호 역, 『면양집』, 담양문화원, 1995.

다. 따라서 회방연 관련 시가 분석 등의 작업보다는 회방연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송순의 회방연과 관련된 연구로는 임준성의 「‘侑仰亭三十詠’과 문화콘텐츠 활용」⁴⁾을 들 수 있다. 임준성은 이 연구에서는 송순이 경험했던 회방연을 재현하고 이와 함께 거행되었다는 도과(道科) 시험을 문화 콘텐츠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선시대 회방의 변천에 관해 살펴본 연구로는 노인환의 「조선시대 회방(回榜)의 변천과 시행」⁵⁾을 들 수 있다. 노인환은 이 연구를 통해 가죽 경사에서 시작된 회방이 국가적 제도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두 연구를 바탕으로 회방연이 양반, 그 중에서도 소수의 관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의례였음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회방연의 시작 - 송순의 회방연

회방연은 대과(大科)나 소과(小科)에 급제한 날로부터 육십(六十) 돌을 맞은 때에 벌이던 기념하는 행사를 말한다. 조선 후기 최영년(崔永年, 1859~1935)은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회방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회방례 : 옛 풍속에 과거에 합격한 날이 다시 돌아와 일갑(一甲)이 되면 어전에 서 홍패(紅牌)를 내리고, 악인(樂人)과 어사화(御賜花)를 보내주는 영광이 있었다. 또한 일급을 더해주고 조정에 나와 솔방(率榜)을 하는데, 이를 ‘회방잔채’라 한다.”⁶⁾

조선시대 문과 급제의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임을 고려한다면 회방연은 거

4) 임준성, 「‘侑仰亭三十詠’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제56집, 우리말글학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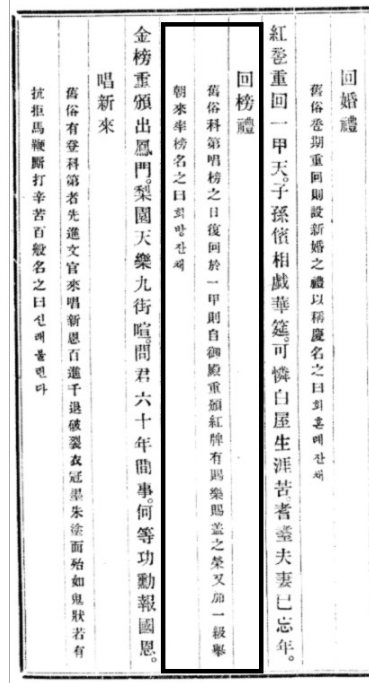
5) 노인환, 「조선시대 회방(回榜)의 변천과 시행」, 『국학연구』 제3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6) “回榜禮 舊俗科第唱榜之日 復回於一甲 自御殿 重頒紅牌 有賜樂賜蓋之榮 又加一級 舉朝來率榜 名之曰 회방잔채”(『海東竹枝』中篇, 俗樂遊戯)

의 아흔 살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과에 급제한 후 회방연을 맞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젊은 나이에 합격하는 생원·진사시 합격자의 회방연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⁷⁾

조선시대 회방 혹은 회방연이 처음 시행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초기 회방연은 국가에서 행한 공적 행사(公的行事)라기보다는 가족들이 행해 준 사적 행사(私的行事)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송순의 회방연에 대한 기록이 있다. 1579년에 시행된 송순의 회방연은 『면앙집』에 기록⁸⁾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림 1> 『해동죽지(海東竹枝)』의 회방연 관련 기록

“만력 기묘 시월에 가족들이 정자에서 회방연을 베풀 적에 이를 조정에 알린 사람이 있었다. (이를 들은)금상(선조)께서 호조(戶曹)에 명하여 꽃과 술을 내려 주시기를 신은(新恩) 때의 준례와 같았다. 이때 제봉(고경명), 송강(정철), 고봉(기대승), 백호(임제)와 함께 전라도의 방백 및 수령 등 백여 명이 함께 노닐었다.”⁹⁾

7) 허인옥,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돌베개, 2010, 219쪽.
 8) 관련 내용은 『면앙집』 卷之四 諡狀 右參贊企村宋公諡狀[趙鍾永]. ; 卷之五, 附錄, 有明朝鮮國 故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事 企村先生宋公家狀 ; 卷之五, 附錄, 議政府右參贊宋公行狀 ; 卷之五 附錄 議政府右參贊倂仰亭先生年譜 등에 있다.
 9) “萬曆己卯十月 家人設回榜宴于亭子 有以啓聞者 上命戶曹賜花宣醞 一如新恩時例 而霽峯松江 高峯 白湖與本道方伯及守令共百餘人并赴之”(『면앙집』 卷之五, 附錄, 有明朝鮮國 故

내용을 보면 집안사람들이 송순의 회방을 맞이하여 정자(亭子)에서 회방연을 베풀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는 100 여명의 손님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 송순의 회방연이 열린다는 사실을 정부에 보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처음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의 규례와 같이 꽃 [御賜花] 를 하사하고, 술을 내려주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은 다음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묘(1579) 만력 칠월, 선조 12년 : 선생의 나이 87세이다. 시월에 선생의 가족들이 회방연을 면양정에서 베풀었다. 금상께서 호조에 명하시어 어사화와 술을 내리시고 축하하는 것이 꼭 급제에 합격할 때 내리신 것과 같았다. 송강 정철, 제봉 고경명, 고봉 기대승, 백호 임제, 그리고 전라도 백규암, 송건수와 함께 각 고을 수령 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전라도가 온통 축제분위기였다. 밤이 깊어지자 선생께서 약간 취기가 있어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시고자 하시니 정송강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공을 남여(藍輿)로 모시자면서 우리 모두가 남여를 떼자고 하였다. 일시에 모두가 남여를 붙들고 내려가니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여 광영스럽다며 이야기하기를 이는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라 하였다.”¹⁰⁾

송순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자(字)는 수초(守初) 또는 성지(誠之), 호(號)는 기촌(企村) 또는 면양정(旃仰亭), 본관은 신평(新平)이다. 27세(중종 14, 1519) 때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로 관직에 올랐다. 41세(중종 28, 1533) 때 담양 제월봉(霽月峯) 아래에 면양정을 세우고 호남지역의 명사들과 문학적 친분을 쌓았다.¹¹⁾ 77세(선조 2)까지 한성부관윤(漢城府

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事 企村先生宋公家狀

10) “己卯萬曆七年 宣祖十二年 先生八十七歲 十月 先生家人設回榜宴于旃仰亭 上命戶曹賜花宜醞 一如新恩時 鄭松江澈 高霽峯敬命 奇高峯大升 林白湖梯 又道伯圭菴木麟壽 邑宰共百餘員并會 一道簞觀 夜深 先生微醺 欲還溫室 鄭公倡曰 舉公藍輿也不惡 吾輩當荷輿 一時扶擁而下 人皆嗟歎而榮之曰 此前古 所未有也”(『旃仰集』卷之五, 附錄, 議政府右參贊旃仰亭先生年譜)

11) 김신중 외, 『호남의 시조문학』, 심미안, 2003, 8쪽.

判尹),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겸 춘추관사(春秋館事) 등을 역임하는 등 50여 년 동안 관료 생활을 하였다. 1579년(선조 12) 10월에 가족들이 회방연을 베풀어 주었고, 1582년 2월에 생을 마감하였다.¹²⁾

1519년에 과거에 합격한 송순에게 1579년은 과거 합격 60주년이 되던 해였다. 면양정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철(鄭澈, 1536~1593),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임제(林梯, 1549~1587) 등 제자(弟子)와 평소 교류(交遊) 했던 인물, 고을 수령 등이 참석하고 있다. 당시 전라도의 현직 관료들이 대거 축하객으로 모였던 셈이다.

다만 이 기록에서 기대승이 참여 했다는 내용은 확인을 요하는 부분이다. 송순이 과거에 합격한 후 60주년이 되던 해는 1579년이었으며, 회방연도 같은 해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마(남여)를 메었던 네 명의 제자 중 기대승은 1572년에 죽었으니, 죽은 지 이미 7년이 지났던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승이 회방연에 참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은 송순의 회방연에 관한 신뢰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서 “송순의 회방에 어사화를 하사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회방을 지원하는 근거 사례로¹³⁾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순의 회방연 실행 여부는 분명해 보인다.

위의 기록에는 악사나 무동 혹은 기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잔치 풍경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대신에 송순이 취기가 있어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제자와 지인들이 송순이 탄 가마를 자신들이 직접 맨 진풍경이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당시에 스승과 제자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당시 제자들이 교자꾼처럼 가마를 메었다는 이야기는 시인묵객들에게도 전설처럼 회자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의 예로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12) 『俛仰集』 卷之五, 附錄, 有明朝鮮國 故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事 企村先生宋公 家狀 내용 참조.

13) 숙종 때 회방을 맞은 이광迪(李光迪)과 관련된 것으로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14) 임준성, 위의 논문, 471쪽.

지는 시¹⁵⁾에도 그 모습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歷歷秋天曙	가을하늘 밤 분명한 꿈속에
名亭大老陪	유명한 정자에서 선생님을 모셨다네.
筵應回榜設	회방연 잔치 벌린 자리에
客爲舉輿來	오신 손님 남여(藍輿)를 메는구나.
一代楡高鳳	당시에 높은 관원에 둘러 서 있는데,
餘生愧下駘	이내 인생 노둔한 게 부끄럽다.
猶存歸隱計	돌아가 은둔할 계획 갖는 것은
未受嶽靈猜	산신령 정기를 못 받았기 때문이리라.

정조(正祖)는 1798년(정조 22)에 광주목사(光州 牧使) 서형수(徐滢修, 1749 ~ 1824)에게 명하여 도과(道科)를 실시하라고 명한다. 이때 정조가 ‘면양정에서 죽여(竹輿)를 메다. [荷輿俛仰亭]’라는 시제(詩題)를 손수 내어주는 것¹⁶⁾으로 볼 때 송순의 회방연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현판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현재 면양정에서 14개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중 하나가 정조가 내린 어제(御製) 현판이다. 그 내용 중 회방연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송순이 문과 급제한 지 60년이 되던 날에 면양정에서 축하하는 잔치가 베풀어

15) “東部直廬 夢遊俛仰亭 陪回榜宴有感 晚節一律 戊戌秋”(『俛仰集』卷之七, 俛仰亭雜錄)

16) “<면양정에서 죽여(竹輿)를 메다>로 시제를 삼고-압운은 정(亭)이다 <장군수(將軍樹)>로 부제를 삼고, “본조의 신하들이 주나라가 후직을 제사하던 예를 써서 조경묘를 지은 것을 하례하는 내용으로 상경하여 지으라.”로 전제(箋題)를 삼고, “내 네가 살 곳을 도모해 보니 남쪽 땅 한 곳이 없다.”로 의제(義題)를 삼고, “호남”을 책제(策題)로 삼아서 광주 목사 서형수에게 명하여 광주부로 가지고 가서 어정(御定) 《대학연의》와 《대학연의 보》 및 《주자대전절약》을 교정하고 서사(書寫)한 유생들을 모두 부의 치소에 나아와 응시하게 하고 시권을 거두어서 올려 보내라고 명하였다(荷輿俛仰亭爲詩題 押亭 以將軍樹爲賦題以擬本朝群臣賀用周家祀后稷之禮建肇慶廟爲箋題以我圖爾居莫如南土爲義題以湖南爲策題命光州牧使 徐滢修持往該府命御定大學衍義 衍義補及朱子大全節約校正書寫儒生成詣府治應試收券上送至是)”(『日省錄』, 正祖 二十二 戊午, 六月 十八日 庚戌)

졌다. 마치 신은(新恩) 때와 같아서 진라도 온 고을이 흠모하여 구경하였다. 술자리가 반쯤 이르렀을 때 수찬(修撰) 정철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이 어른을 위해서 대나무 가마를 메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드디어 정철은 헌납 고경명, 교리 기대승, 정인 임제와 함께 송순을 태운 대나무 가마를 떠메고 내려왔다. 그 뒤를 각 고을 수령과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따랐다. 사람들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하였다. 이는 실로 옛날에도 없었던 훌륭한 행사였다.”¹⁷⁾

회방연 도중에 송순이 탄 가마를 맨 것을 두고 실로 옛날에도 없었던 훌륭한 행사라고 극찬을 하고 있다. 현재 도과시험에 관한 실록(實錄) 기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에 이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당시 도과시험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학경(奇學敬, 1741~1809)의 장편 고시 한 편이 전하는데 다양한 고사를 인용하여 당시 회방회의 성대함과 화려함을 상상 속에서 읊고 있다.¹⁸⁾ 그 시¹⁹⁾ 중에서 회방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前略> …

… <전략> …

榮宴大開高亭春 높은 정자에서 봄날 잔치를 크게 여니
 湖下嘉賓來滿庭 호남의 귀빈들 뜰에 가득 찾아왔네.
 道德文章節義士 도덕과 문장과 절의 높은 선비 택에
 鄉黨州郡又朝廷 향당과 주군의 선비들이 또 조정을 이루었네.
 稱榮玉律詠何已 영화에 걸맞은 옥 같은 시 읊기를 어찌 그만두며
 獻壽金盃行不亭 헌수하는 금잔 돌리기를 멈추지 않네.
 鄉飲宜修敬老禮 향음은 의당 경로의 예를 수행하나니
 茲遊豈但侍軒屏 이 즐거운 놀이에 어찌 헌병에서만 모시랴.

17) “登第周甲日 設宴于俛仰亭上 如新恩時 一道聳觀 酒半修撰鄭澈曰 吾儕爲此老荷竹輿可乎 遂與獻納高敬命 校理奇大升 正言林梯 掖上扶輿而下 邑宰及四隣來會者隨之 人皆嗟歎而榮之 此實前古所未有之盛事也”(『俛仰集』 卷之五, 附錄, 御製湖南校準儒生應製試題,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18) 임준성, 앞의 논문, 473~474쪽.

19) 기학경 저, 박경래 역, 『謙齋集』, 卷之一, 詩, 荷與俛仰亭御歌, 고봉선생선왕위원회, 2017.

秋城老竹結爲輿 추성의 노죽 묶어 가마를 만드니
 可合令公行出柁 영공 모시고 들로 나가니 알맞구나.
 扶荷非無諸子弟 가마 벨만한 자제들 없는 것 아니나
 以此何能聳瞻聆 이 일로 어찌 사람들을 보고 듣게 해주랴.
 臺臣在前學士後 대신들은 앞서고 학사들 뒤에 서서
 緩踏春岡芳草靑 봄 언덕 방초 푸른 길을 서서히 밟아가네.
 依然瘦鶴上蓋松 의연한 야윈 학이 솔 위에 있는 듯
 忽復神仙下雲軒 홀연히 또 신선이 구름수레에서 내려온 듯싶네.
 … <後略> … … <후략> …



<그림 2> 송순의 과거급제 60년 잔치를 묘사한 《면양정 회방연도》(금봉 박행보 그림,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2000년 제작)

송순의 회방연은 지역 유지 뿐만 아니라 고을 수령들이 대거 참석한, 전라도 지역에서 주목 받는 잔치였다. 송순의 회방연은 그 규모의 성대함뿐만 아니라 잔치에서 제자와 지인들이 손수 가마를 메고 송순을 모신 일화가 후대에 더욱 회자되었다.

한국가사문학관에 전시 중인 송순의 《면양정 회방연도》에도 이런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 그림에는 연회가 베풀어지는 면양정 뜰에서 네 명의 선비가 가마를 메고 있고, 어사화를 쓴 송순이 가마에 타고 있는 모습이 중앙에 그려져 있다. 2011년에는 호남문화원 주최로 면양 송순 회방연 시연이 재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나무로 가마를 만들고 제자들이 스승을 가마에 메고 가는 모습을 재현했다.²⁰⁾ 그만큼 송순의 회방연은 단순한

20) <면양 송순 회방연 재현행사 성료>, 《담양인 신문》, 2011년 11월 13일자.(<http://w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579>, 2020년 02월 06일, 접속)

과거 합격 60주년 기념 잔치가 아니라 송순의 덕망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대우의 격식을 갖춘 최고의 기념식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3. 회방연의 변천 - 국가 기념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송순의 회방연은 가족들이 행해준 개인 행사였다. 그렇지만 100 여명의 손님이 참석한 지역 잔치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송순의 회방연은 향후 다른 이들의 회방연이 국가의 공식 행사로²¹⁾ 시행되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즉 선조(宣祖)가 송순에게 어사화를 하사한 일은 후에 회방연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임금의 명으로 내리는 데 선례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이광적(李光迪, 1628~1717)의 회방이다. 1656년(효종 7)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이광적은 1716년(숙종 42)에 회방을 맞이한다. 당시 제조(提調)였던 민진후(閔鎭厚, 1659~1720)가 이광적의 회방을 조정에서 기념해 줄 것을 건의한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올해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광적(李光迪)이 급제한 지 회갑(回甲)이 되는 해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전배(前輩)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특별히 명하여 사화(賜花)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유전(流傳)하는 말이므로 잘 알 수는 없으나, 이제 특별히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을 내린다면 합당할 듯 합니다.”하니,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쌀·고기·배·비단을 내리게 하였다.”²²⁾

21) 조선시대 회방연의 변천 과정은 노인환의 연구를 기반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인환, 앞의 논문 참조.

22) “提調閔鎭厚曰 今年 乃知中樞府事李光迪及第回甲之年 曾聞前輩 亦有如此事 其時特命賜花 云 此是流傳之言 有不可詳 今若特加優老之典 則似爲合宜 上命該曹 賜米肉 布帛”(『肅宗實錄』, 四十二, 九月 十四日 庚午)

민진후의 청에 의해 숙종은 쌀과 고기, 배, 비단을 하사한다. 그런데 민진후는 “전배(前輩)에게 꽃을 하사한 사례” 즉, “선조가 송순에게 어사화를 하사한 것”을 예로 들어 숙종(肅宗)에게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제 회갑은 내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진실로 귀한 것이다. 꽃을 하사한 고사(古事)가 분명한가?” 하니 민진후가 말하기를 “고재상 송순은 호남사람으로 회방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 특별히 꽃을 만들어 보낸 것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이 필요 없으므로 단지 쌀과 배를 주는 것만으로 어찌 성대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흉년으로 무릇 사치와 관련된 일은 모두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감히 아뢰니다.”라고 하였다.”²³⁾

숙종이 회방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전례를 묻자 송순의 회방에 어사화를 하사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당시 흉년이 들어 사치스러운 모든 일을 금하였지만, 회방은 특별한 일이기에 쌀과 배를 하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숙종은 해조(該曹)에 명하여 쌀과 배를 마련해 주라 한다.

이러한 이광적의 사례는 후에 다른 사람들의 회방에 국가에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에 선례(先例)로 인용되기도 한다. 영조(英祖)가 1747년에 김명은(金鳴殷)의 회방에 꽃과 식물을 내리게 한 것²⁴⁾이 하나의 예이다.

개인적인 기념 행사였던 회방연은 정조(正祖) 연간에 점차 제도화 되었다.

23) “上曰 及第回甲 予未曾聞 誠可貴也 賜花故事分明耶 鎮厚曰 故宰相宋純 以湖南人 設回榜之宴 其時自朝家 特爲造花下送 至今流傳矣 然今不必賜花 只給米布 亦豈不爲盛舉乎 當此荒歲 凡係侈大之事 皆不可爲 而此則世所絕罕 故敢有所達矣”(『承政院日記』, 肅宗 四十二, 九月 十四日, 庚午)

24) “김명은(金鳴殷)의 회방(回榜) 때에 꽃과 식물(食物)을 내리되, 해조(該曹)와 해도(該道)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김명은은 안주(安州) 사람으로서, 숙종 정묘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나이 88세이었다. 대신이 선조(先朝)의 고 판서 이광적(李光迪)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아뢰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命金鳴殷回榜時 賜花食物 令該曹 該道給之 鳴殷 安州人 卽肅廟丁卯科 年八十八 大臣引先朝故判書李光迪古事奏之故有是命)”(『英祖實錄』, 英祖 二十三年 六月 十二日 辛未)

정조는 1786년(정조 10)에 전교를 내려 회방된 사람에게 특별히 한 품계를 올려주는 것을 정식으로 행하게 한다.

“문무과 및 생진과의 회방은 희귀한 일인 만큼 조정에서 연고한 자를 존중하는 도리로 볼 때 진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차후로 대과와 소과의 회방인에 대해서는 경조 및 해도로 하여금 세수에 일체 방문하여 만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초기 하거나 장문하게 하고, 이어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한 자급을 올리게 하라고 정식 하여 시행하라.”²⁵⁾

“노인직(老人職)의 가자(加資)를 세수(歲首)에 하비하는 규정과 대소과(大小科) 회방인(回榜人)을 가자하는 규정을 정하였다. 또 잡과(雜科)도 일체 시행하라고 명하였다.”²⁶⁾

정조의 전교에 따라 매년 중앙과 지방의 관원들 중 회방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공식적 기념식을 열어 주었다. 연초에 한성부와 각도의 감영에서 회방인의 인원을 파악한 후 국왕에게 이를 보고하면, 국왕이 회방인에게 입시(入侍) 하라는 명을 내리고, 회방인은 서울로 올라온다. 국왕은 궁궐에서 회방인을 소견한 후 어사화를 내려주고 과거에 합격한 시험에 따라 회방홍패(回榜紅牌) 또는 회방백패(回榜白牌)를 발급해 주었다. 중앙 군영에서는 회방연의 비용을 마련해 전달해 주었으며, 회방인은 궁궐을 나와 유가(遊街)를 거행하였다. 회방인이 고령(高齡) 등의 원인으로 인해 서울에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사화, 회방홍패 또는 회방백패 및 회방연 비용 등을 내려 보내 지방수령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다.²⁷⁾

25) “文武科及生進回榜 係是稀異之事 在朝家尊年之義 宜有軫念之舉 此後大小科回榜人 令京兆及該道歲首 一體訪問 如有之 草記或狀聞 仍令該曹特加一資事 定式施行”(『日省錄』, 正祖十年 一月 二十七日, 壬申)

26) “老人職 加資歲首下批 及大小科回榜人 加資之式 又命雜科一體施行”(『國朝寶鑑』, 正祖朝, 十年, 春正月)

27) 노인환, 앞의 논문 235~238쪽.

1895년(고종 32) 2월 고종은 법제에 따라 생원으로 회방을 맞이한 장건규(張建奎)와 양기형(梁基衡)에게 각각 가선대부(嘉善大夫)와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는데,²⁸⁾ 이것이 회방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다.



<그림 3> 《평생도》의 <회방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회방례> 전도(좌), 가마 행렬 부분(중), 악사와 광대 부분(우)

그렇다면 회방연은 어떤 모습으로 연행되었을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회방을 기념해준 모습은 19세기에 그려진 《평생도(平生圖)》의 <회방례(回榜禮)>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방인이 궁궐에서 어사화와 회방홍패를 받은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과거에 처음 합격 했을 때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면서 은문(恩門)과 선배·친척 등을 방문하는 삼일유가(三日遊街)를 재현한 것이다. 행렬의 선두에는 국왕에게 하사받은 화개와 회방홍패가 있고, 악기 연주자 8명, 무동 2명이 있다. 회방인의 뒤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관원이 뒤따르고 있는데, 궁궐에 입시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28) “내무아문이 부호군 장건규(張建奎)에게 지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하고, 생원 양기형(梁基衡)에게 지금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초자(超資)하였는데, 이상은 생원 회방인(生員回榜人)에게 법전에 따라 가자한 것이다(內務衙門 副護軍張建奎今加嘉善 生員梁基衡今超通政 已上生員回榜人 依法典加資)”(『承政院日記』, 高宗 三十二年 二月 二十三日 乙丑)

것으로 추정된다.²⁹⁾

이처럼 회방(연)은 조선 전기에는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행사로 기념되었다가 후기로 가면 국가적인 경사로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연회도 개인이 준비한 잔치에서 국가가 물품과 비용, 그리고 기념품 등을 제공해 주는 공식 기념식으로 발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4. 회방연의 가치 - 소수의 특별한 경험

조선조 말 유학자이자 관료였던 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 1835~1922)은 “가정에 드문 경사로 회갑·회방·회근 등 ‘삼회(三回)’”³⁰⁾를 꼽았다. 여기서 말하는 회갑(回甲)은 돌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를, 회방(回榜)은 과거 급제를 한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를 뜻한다. 회근(回矧)은 부부가 혼례를 치른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를 말하는데, 회혼(回婚)이라고도 한다.

‘회(回)’는 ‘돌아왔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회갑이라는 말은 ‘갑(甲)으로 돌아왔다.’는 뜻이다. 이는 60갑자 중 처음 자신이 태어난 간지로 돌아왔다는 뜻을 지닌다. 이만수(李晩秀)가 『극원유고』에서 “인생 육십은 갑자(甲子)가 구갑(舊甲)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 삼원(三元)의 기원이다.”³¹⁾고 한 것처럼 옛 사람들에게 있어 출생이나 출사, 혹은 혼인 등이 처음 이루어졌던 때의 간지(干支)가 다시 시작되는 60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금보다 평균 수명³²⁾이 훨씬 짧았던 옛사람들에게 60년을 다시

29) 노인환, 앞의 논문 237쪽.

30) “가정에 드문 경사(慶事)로 반드시 ‘3회(三回)’를 일컫는다. 회갑(回甲)·회방(回榜)·회근(回矧)이 그것이다(人家希有之慶 必稱三回 曰回甲回榜回矧是已)”(『雲養集』, 雲養續集 卷之二, 序, 金長溪回矧詩序)

31) “人生六十 甲子重過回二舊甲 三元之權輿也.”(『履園遺稿』 卷之九, ○玉局集 叙, 攢稽錄叙)

32)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이다.(통계청 : <http://kostat.go.kr>).

맞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도 회갑(61세)이 되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16세에서 60세 이하는 호패(戶牌)를 착용하며 국역의 의무를 부담토록 했다. 외거노비도 그동안 부과된 요역(徭役)에서 제외(除役)된다. 사관(士官)의 경우 60세가 넘으면 퇴관(退官) 할 수 있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고된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³³⁾ 이처럼 회갑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았다.

그런데, 회갑이나 회혼은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인 반면, 회방은 양반만이, 그것도 장수한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것이다. 회방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방이 이루어지긴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과거에 급제해야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광종(光宗, 925~975)이 한림박사(翰林博士) ‘쌍기(雙冀, ?~?)’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조선으로 이어졌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과거 급제는 관직 진출의 발판이자, 사회적 지위를 보장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천인만 아니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³⁴⁾ 그렇지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한 상층의 구성원인 ‘양반’이 응시자와 합격자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였다.³⁵⁾

33) 김효경, 「조선시대 老人의 존재양상—연령과 신분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2호, 역사민속학회, 2017, 17~18쪽.

34)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과거를 볼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구히 임용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再嫁)하거나 행실이 어긋난(失行)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 도(道)에 살고 있지 않는 자나 조사(朝士)로서 현직에 있는 자는 향시(鄕試)에 응시하지 못한다. 【만약 왕명을 받아서 휴가를 받은 자면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무과도 같다】. (罪犯永不叙用者, 贓吏之子, 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 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非居本道者, 朝士見在職者, 勿許赴鄕試. 【若承差受假者, 不在此限. 並武科同】)”(『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

35) 이선엽·김도현, 「과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성찰-조선의 ‘문과시험’을 중심으로-」, 『한국학

과거시험에 응시한 모든 양반들이 합격의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응시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합격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영조 대에 만여 명이었던 응시자 수는 정조 대에 몇 만 명의 수준에 이른다. 19세기 전반에도 응시자는 평균 5~6만 명에 이르렀는데, 고종 대에는 평균 11만여 명으로 급증하였다.³⁶⁾ 갈수록 응시자가 늘어나고 합격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방을 맞이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인 과거 시험 합격도 소수의 양반만이 경험 할 수 있는 셈이 된다.

회방이 이루어지긴 위한 나머지 조건은 과거 급제 후 60년 이상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60살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예로 조선후기 고령신씨(高靈申氏) 봉례공파(奉禮公派), 북백공파(北伯公派), 고천군파(高川君派)의 족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고령신씨들의 평균 수명은 60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기별 고령신씨 평균수명을 표³⁷⁾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시기별 남녀평균수명 추이

시기	남성평균수명	시기	여성평균수명
1454~1700	55.68	1537~1700	50.28
1701~1800	52.94	1701~1800	52.73
1801~1900	54.57	1801~1900	64.43
전체 평균	54.39	전체 평균	55.81

<표 1>를 보면 19세기가 되어야 비로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응시자였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조선시대

정사학지』 21호, 한국행정사학회, 2007, 5쪽.

36) 박현순, 「과거 급제를 위한 고군분투」, 『2015년도 역사문화강좌-과거의 시관: 한국적 가치의 재조명』,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5쪽.

37) 이기순, 「조선후기 高靈申氏의 혼인·출산과 수명」,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01, 111쪽.(전체 평균 계산은 필자가 수정).

내내 6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 했듯이 과거 시험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과거 합격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문과가 36.4세, 생원·진사시가 34.5세 정도였고, 18세기 후반 문과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39.0세나 된다.³⁸⁾ 따라서 과거 급제 나이를 고려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회방은 90세 이상을 살아야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장수는 회방을 경험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인 셈이다.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중에 “기로(耆老)”라는 것이 있다. 기(耆)는 60세 이상, 노(老)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³⁹⁾이다.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70세 이상 관원들은 기로소(耆老所)에 가입하는데, 임금의 경우는 60세에 가입한다. 조선 초기 정이품 이상, 70세 이상의 기로에게는 기로소에 가입토록 하여 정책적 자문을 맡겼다. 세종 이후에는 친목과 예우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게 하였는데, 매년 상사(上巳, 3월 3일)와 중양(重陽, 9월 9일)에 기로연(耆老宴)을 베풀어 주었고, 의복 등의 물자와 쌀, 고기 등을 하사했다.⁴⁰⁾ 그렇지만 이들도 회방을 경험하기는 어려웠다. 30세에 과거에 합격을 하였더라도 90세 이상을 살아야만 회방의 경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송순은 27세에 과거에 합격해 87세에 회방을 맞았고, 이광적은 29세에 과거에 합격해 89세에 회방을 맞았다.

회방(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급제 후 60년 이상 삶을 유지한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기념식이다. 초기 집안 개인 축하연으로 출발한 회방연은 이후 제도화 되면서 어사화와 회방홍패(혹은 회방백패) 뿐만 아니라, 어주(御酒) 등 필요 물자들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가 기념식으로 변모하였다.

철종 때 원로 정치인이었던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임술년

38) 박현순, 위의 글, 35쪽.

39) “예순 살은 기(耆)라고 하며 일을 시킨다. 일흔 살은 노(老)라고 하며 일을 전한다(老六十曰耆指使 七十曰老而傳)”(『禮記, 曲禮, 上』)

40) 김효경, 위의 논문, 24쪽.

(壬戌年, 1862)에 회방을 맞이하여 벌인 기념식에 이런 모습이 잘 보이는데, 삼일유가(三日遊街) 재현 부분과 연회 부분⁴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한 번 급제(及第) 어렵거든 회방연(回榜宴) 더욱 희귀하다. …<중략>… 백발두상(白髮頭相) 비단사화(賜花) 오사패(烏賜牌)에 도리옥(桃李玉)에 호피(虎皮) 밧기 친 평교자(平橋子)에 파초선(芭蕉扇)을 높이 받치고 사급(賜給)하신 비둘기새 구계장(鳩几杖)은 어이 아니 짚으신고 …<중략>… 쌍쌍 홍패(紅牌) 선봉(先鋒)이요 사송(賜送)하신 청개홍개(靑蓋紅蓋) 금빛 의장(儀仗) 화선채선(華扇彩扇) 사악(賜樂)하신 갖은 풍류(風流) 여민락(與民樂)이 더더욱 좋다 녹의홍상(綠衣紅裳) 쌍쌍 무동(舞童) 옥수한삼(玉袖汗衫) 느린 춤이 한가하고 변화하다. …<중략>… 앞뜰에는 차일이요 숙수(熟手) 앉아 수팔연(壽八蓮) 더욱 곱다. 일품제상(一品宰相) 명사들과 남행호반(南行虎班) 빈객(賓客)들, 원근친척(遠近親戚) 노소(老少) 없이 삼사 사랑에 가득하고, 중인녹사(中人錄事) 수청(守廳)들이 좌우로 시립(侍立)하고, 장악원(掌樂院) 갖은 삼현(三絃) 생소고악(笙蕭高樂) 환천(暄天)한데, 명기(名妓) 절대가인(絶代佳人) 무산선녀(巫山仙女) 내려온 듯, 동방청제(東方靑帝), 서방백제(西方白帝), 남적제(南赤帝), 북방흑제(北方黑帝), 중앙황제(中央黃帝), 오방(五方)춤과 보기 좋은 입춤이며, 검무춤은 심효녀의 상(象)이런가, 반도(蟠桃)춤도 좋거니와 배따라기 더욱 좋다. …<후략>…”⁴²⁾

회방연이 국가에서 행해주는 기념식이 되면서 어사화, 회방홍패, 궤장 등과

41) <히동정상국회방연>은 가사 <정상공회방기록(鄭相公回榜記錄)>의 이본(異本) 중 하나로서, 동일한 제목을 표제로 한 『히동정상국회방연』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가사문학과 소장.

42) “…<전략>… 흥번급제 어렵거든 회방연 더욱희귀 …<중략>… 백발두상 비단사화 오사패의 도리옥의 호피끼친 평교자의 파초선을 높히밧고 사급하신 비둘기새 구계장은 어이 아니 짚으신고 …<중략>… 쌍쌍홍패 선봉이요 사송하신 청기홍기 금빛의랑 화선채선 사악하신 가진풍류 엮일낙이 더더욱조타 녹의홍상 쌍쌍무동 옥수한삼 느린춤이 한가하고 변화한다. …<중략>… 앞뜰의는 차일이요 숙수안주 수팔연이 더욱곱다 일품제상 명사들과 남행호반 빈객들 원근친척 노소업시 삼사사랑 가득하고 흥인녹사 수청드리 좌우로 시립하고 장악원 가진삼현 생소고악 환천한데 명기 절대가인 무산선녀 내려온 듯 동방청제 서방백제 남적제 북방흑제 중앙황제 오방춤과 보기조흔 입춤이며 검무춤은 심효여의 상 일런가 반도춤도 조커이와 비다락이 더욱조타 …<후략>…”, 『히동정상국회방연』, 한국가사문학관 소장.

함께 악인(樂人), 무동(舞童) 등을 하사하여 유가(遊街)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집에서 행해진 회방연에도 장악원의 악공(樂工)과 여기(女妓) 등을 보내 연회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는 “한 번 급제(及第)도 어렵지만, 회방연(回榜宴) 더욱 희귀하기” 때문이다.

회방은 일반 사람들이 장수하면 경험할 수 있는 ‘회갑’이나 ‘회혼’과는 달리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경험하고 장수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회방(연)은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의례인 것이다.

5. 맺음말

조선시대 양반(兩班)은 선비 [士] 와 진·현직 관료 [大夫] 를 일컫는 사대부(士大夫)라는 말과 통용되어 사용되었다. 진·현직 관료는 본디 선비였기에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科擧)에 합격하여야 하였다. 과거는 신분 유지나 출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그렇지만 과거 합격은 그리 녹녹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17세기 이후에는 응시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합격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갈수록 응시자가 늘어나고 합격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점에서 젊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것은 가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크나큰 영광인 셈이다. 또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지 60년이 되는 회방(回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20대 전후에 소과나 대과에 합격하여 80세 이상의 장수한 관원만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조선시대 회방과 관련된 기록은 면양정 송순에 관한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1519년에 과거에 합격한 송순은 1579년에 회방을 맞는다. 이에 가족들이 면양정에서 회방연을 베풀어 주는데, 정철, 고경명, 임제 등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당시 전라도의 진·현직 관료들이 대거 축하객으로 참석한다. 이때

취기가 있던 송순을 제자와 지인들이 손수 가마를 메고 옮긴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스승과 제자가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은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었다.

다만 이 기록에서 기대승이 참여 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송순이 과거에 합격한 후 60주년이 되던 해는 1579년이었으며, 회방연도 같은 해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마(남여)를 메었던 네 명의 제자 중 기대승은 죽은 지 이미 7년이 지났던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에 기대승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는 『면양집』 기록에 보이는 회방연의 신뢰성과 결부되어지는 문제이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서 “송순의 회방에 어사화를 하사한 사례” 회방의 근거로 삼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회방연의 실행은 분명해 보인다.

회방은 정조(正祖) 연간에 점차 제도화 되었는데, 회방을 맞은 사람에게 특별히 한 품계를 올려주는 것이 정식으로 행해졌다. 또한 회방인을 입궐하게 하여 어사화를 내려주고, 회방 흥패(또는 백패)를 발급해 주었으며, 회방연의 비용을 마련해 전달해 주었다. 아울러 유가(遊街)를 거행할 수 있도록 악인(樂人)과 무동(舞童) 등을 하사해 주었다. 회방인이 고령(高齡) 등의 원인으로 인해 서울에 올라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사화, 회방흥패 및 회방연 비용 등을 내려 보내 지방수령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다. 이처럼 회방(연)은 조선 전기에는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행사로 기념되었다가 후기로 가면서 국가적인 행사로 제도화되었다.

옛 사람들에게 있어 출생이나 혼인 등이 이루어졌던 때의 간지가 다시 시작되는 60 주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새로이 시작된다는 의미와 함께, 장수(長壽)라는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방은 일반 사람들이 장수하면 경험할 수 있는 ‘회갑’이나 ‘회혼’과는 달리 과거에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장수까지 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숙종은 흥년이 들어 사치스러운 모든 일을 금했던 시기에도 회방을 맞은 이광적에게 쌀과 배를 하사한다. 이는 회방이 특별한 일이기에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흥년이 들 때에도 쌀과 베를 하사할 만큼 회방은 특별하고, 기념해 줄만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회방(연)은 소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의례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禮記』

『經國大典』

『肅宗實錄』

『英祖實錄』

『履園遺稿』

『히동정상국회방연』

『承政院日記』

『國朝寶鑑』

『日省錄』

『雲養集』

『海東竹枝』

송순 저, 박래호 역, 『俛仰集』, 담양문화원, 1995.

기학경 저, 박경래 역, 『謙齋集』, 고봉선생선양위원회, 2017

2. 논저

김신중 외, 『호남의 시조문학』, 심미안, 2003.

김효경, 「조선시대 老人의 존재양상-연령과 신분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2호, 역사민속학회, 2017.

노인환, 「조선시대 회방(回榜)의 변천과 시행」, 『국학연구』 3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UCI : G704-001834.2016..30.014)

박현순, 「과거 급제를 위한 고군분투」, 『2015년도 역사문화강좌-과거의 시권: 한국적 가치의 재조명』,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이기순, 「조선후기 高靈申氏의 혼인·출산과 수명」,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2001.

이선엽·김도현, 「과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성찰-조선의 '문과시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21호, 한국행정사학회, 2007.

(UCI : G704-002109.2007..21.004)

임준성, 「『侑仰亭三十詠』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제56집, 우리말글학회, 2012.

(UCI : G704-001206.2012.56..022)

정진영, 「조선시대 지방양반들의 일상생활」, 『고문화』 53권, 한국대학박물관협의회, 1999.

허인욱,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돌베개, 2010.

담양인 신문(<http://www.wdynews.c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jjg.snu.ac.kr>)

통계청(<http://kostat.go.kr>)

한국가사문학관(<http://www.gasa.go.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Abstract |

Consideration on the special ritual Hoobangyeon(回榜宴) experienced by Song Soon

Park, Jong-o
Chonnam Univ, Lecturer

The Hoobangyeon is a ceremony to be held on the 60th anniversary of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Joseon Dynasty, State examination had to pass in order to maintain status or to advance. But,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s was not an easy task. Hoobangyeon was the highest honor that only a long life government official could experience.

The records related to Hoobang of Joseon Dynasty are the earliest data about Myeonangjeong Song Soon. Song Soon welcomes Hoobang in 1579. The family gives Hoobangyeon at Myeonangjeong. This Hoobangyeon is attended by former and current bureaucrats from Jeolla-do. The beautiful images of disciples and acquaintances carrying a sedan chair and carrying Song Soon are made. In a strict status society, teachers and disciples hang out together without being tied to status. This appearance is said to later generations.

Hoobang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Jeong jo era. In particular, raising a special grade to a person who received a Hoobang was formally implemented. The man who was hit by Hoobang went to

the palace. The king lowered eosahwa and issued hoebanghongpae(or hoebangbaegpae). In addition, we prepared and delivered the cost of Hoobangyeon. Like this, Hoebang (Yeon) was celebrated as a personal and family event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later, it was institutionalized as a national event.

For the old, 60 years of the sexagenary cycle has a special meaning. Therefore, hoegab(回甲, 60th birthday) or hoehon(回婚, 60th wedding anniversary) is a special anniversary. Folklore that was practiced in yangban classes is also done in other classes. There are also folklore that only practiced yangban classes. Hoobang is different from the “hoegab” or “hoehon” that ordinary people can experience if they live long. After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you become a bureaucrat and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with long life can enjoy it. For this reason, Hoobang (yeon) is a special Yangban folklore that only a few people could experience.

Key words : Hoobangyeon, State Examination, 6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Myeonangeong Song Soon.